

# 부산상공회의

Story for 부산CEO

# Show



2022 October  
Vol. 607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추천 여행지  
CEO의 단골 맛집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 Contents



발행일 2022년 10월 4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소의 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CEO 취향저격

### 04

추천 여행지  
 가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추천 여행지



### 08

골프에 반하다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골프 여행  
 골프와 함께 즐기는 사우나



### 12

영화 돋보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최신 명작 영화 추천 <헤어질 결심>



### 16

CEO의 단골 맛집  
 30년 전통의 돼지 앞발 미니족 맛집  
 '논골집'



### 18

가객의 인문학  
 젊음을 덕질하면 생기는 것들  
 이상은 <언젠가는>

### 20

쉬어가는 코너

## ZOOM in BC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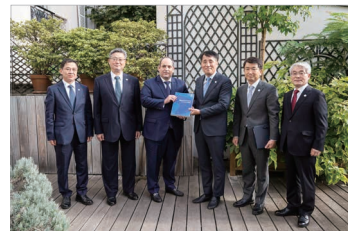
### 22

Story of 캡틴 장



### 24

Together with 203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In France



### 26

기업포커스  
 희창물산(주)



### 30

Look at Me  
 스타트업 '주아디아랩'



## 트렌드 TALK

### 34

Do You Know MZ?  
 M세대와 Z세대는 엄연히 다르다  
 심심한 사과를 아시나요?

## 경제 KEYWORD

### 38

금에 이어 석유와도 이별하는 달러,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 40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 42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4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48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 가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추천 여행지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초가을의 정취를 즐길 새도 없이 계절은 깊은 가을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간다. 어영부영 지나다 보면 어느덧 겨울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처음 맞는 가을이다. 3년 만에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된 가을을 대충 넘겨버릴 순 없다. 가을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1

1, 2\_ 진주 경남수목원



2

## 진주 경남수목원

부산 근교에서 가장 진한 가을을 만날 수 있는 여행지를 꼽으라면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경남수목원이 으뜸이다. 100만 제곱미터 면적에 국내외 식물 3천 400여 종을 선보이는 남부지역 대표 수목원으로 특히 나뭇잎들이 오색으로 물드는 가을이 특히 아름답다. 부산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적당한 거리에, 다양한 수목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단풍이 일품이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덕에 등산이 싫은 분들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단풍여행지다. 고운 빛깔의 단풍도 좋지만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야 말로 경남수목원 가을 풍경의 백미다.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키 큰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오후의 빛을 받아 반짝일 때면 전남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부럽지 않다. 수목원 곳곳에 작은 연못과 동물원, 전망대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청도 운문사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호거산 아래에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운문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구니 사찰이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청정도량이다. 560년 신라 진흥왕 때 창건돼 고려 일연이 머물며 삼국유사 집필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유서 깊은 고찰이다. 아름다리 소나무들이 뽀뽀하게 들어찬 숲을 지나면 아름다운 운문사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오색단풍이 절집을 에워싼 풍경은 과연 명불허전이다. 스님들의 수행도량 안에는 4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우뚝 솟아 있다. 어찌나 키가 큰지 도랑 밖에서도 나무가 훤히 보인다. 은행나무 단풍이 절정에 다다를 즈음, 운문사는 하루나 이틀 정도 도량의 문을 열고 은행나무 단풍을 일반에 공개한다. 샛노란 은행잎이 수행도량을 너른 품으로 포근히 감싸고 있는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쟁그랑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사이로 노랑계 익은 은행나무 잎들이 훑날리면 가만히 눈을 감고 가을 낭만에 취해보자.

3, 4\_ 청도 운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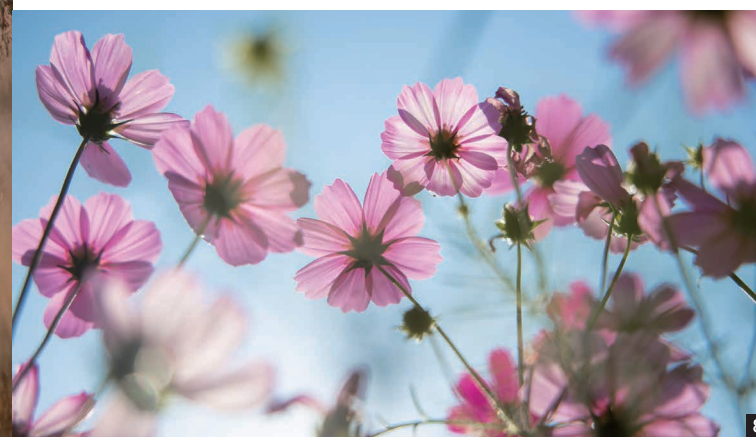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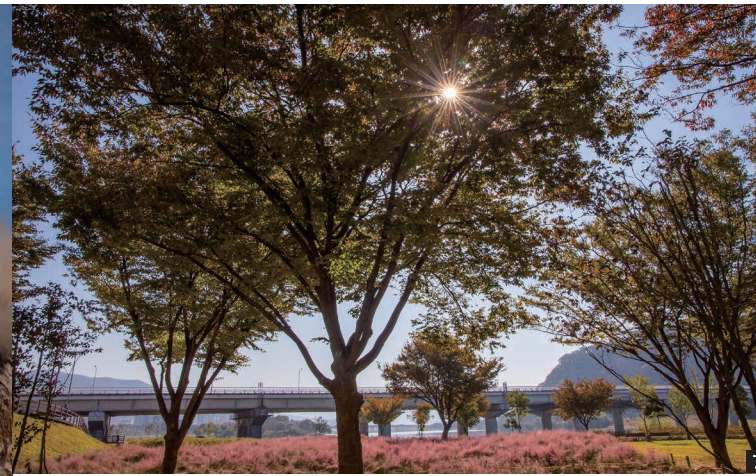


3



4





7, 8, 9\_ 밀양 삼문동

**밀양 삼문동**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는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가을꽃이지만 대규모로 군락을 이룬 풍경은 흔치 않다. 모름지기 꽃은 때로 모여 있을 때 더 큰 감동을 주는 법. 영남루와 가까운 밀양강 삼문둔치에 가을마다 엄청난 규모의 코스모스 밭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강변을 따라 빼곡하게 꽃을 피운 코스모스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꽃의 종류도 다양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파란 하늘 아래 연분홍빛 코스모스가 수줍게 고개를 흔들면 누구라도 발길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게 된다. 코스모스 밭 사이로 작은 오솔길을 만들어 두어서 밭 한 가운데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코스모스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핑크몰리 군락지도 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름 모를 가을꽃들을 구경하다 보면 두 세 시간은 훌쩍 달아난다. 코스모스가 절정을 이루는 10월 중순부터 방문객이 급증해서 한적하게 꽃구경을 하기는 힘들지만 워낙 공간이 넓어서 붐비는 느낌은 없다. 📷



5, 6\_ 합천 황매산

**합천 황매산**

경남 합천군과 산청군의 경계에 위치한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봉우리로,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이 일품이다. 해발고도가 1,100m에 이르는 정상부에는 독특하게도 드넓은 평원이 펼쳐지는데, 5월에는 진분홍 철쭉이, 10월에는 새하얀 억새꽃이 만발해 장관이다. 마치 파도가 치듯 은빛 물결이 출렁이는 모습은 죽기 전에 꼭 한 번 봐야할 절경이다. 억새가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드넓은 평원을 걷다 보면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매평원을 가득 메운 억새를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는 오직 황매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가을 호사다. 자동차로 오토캠핑장까지 오르면 곤장 억새평원으로 걸어갈 수 있다.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길인데다 주변이 탁 트인 공간이라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빠르면 한 시간, 길어도 2시간이면 왕복이 가능하다.





#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골프 여행

누가 뭐라고 해도 해외골프 여행의 시작은 태국이다. 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골프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수많은 골프장이 태국 전역에 산재한 까닭이다. 넓은 땅에 수백 개의 코스들이 있고, 세계 최대 관광대국답게 여러가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우리 입맛에 잘 맞는 담백하고 정갈한 음식과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가 아름다운 곳이 바로 태국이다. 세계 10대 관광지인 방콕에서의 골프 여행에 대해 알아보자.



## 태국 방콕 골프 여행의 장점

방콕 골프 여행의 장점은 공항에서 4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며, 특급 부티끄 리조트와 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숙소와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점이다. 골프장은 태국의 10대 코스로 선정된 36홀 이상의 상급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두 곳 이상의 골프장에서 멀티 라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나이트 시설도 갖춰져있다. 골프장에는 카트진입이 가능하며 1인 1카트, 2인 플레이도 할 수 있다. 골프 라운딩 이후 방콕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방콕을 골프여행지로 찾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난이도의 골프코스로 선정

방콕 GC는 1993년 개장 후, 볼보 마스터즈 챔피언십 등 매년 굵직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유명한 코스다. 워터 헤저드가 다른 골프장들 보다 많은 편이며, 잘 가꿔진 페어웨이와 훌륭한 그린으로 많은 방콕 골퍼들에게 사랑 받는 골프장이다. 특히 야간 골프 시설이 있어 방콕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선선한 저녁에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파5, 9번 홀의 경우 미국의 골퍼잡지에서 세계 50대 골프코스로 선정된바 있다.

- 코스 정보 18홀, 파 72, 6,812 Yards**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연속 태국골프장 선호도 1위를 기록
  - 방콕 공항에서 40분, 방콕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택시로 이동이 가능하다.
  - 한국인 매니저가 상주하여 소통이 편리하고, 골프리조트 10분 거리에 대형쇼핑몰도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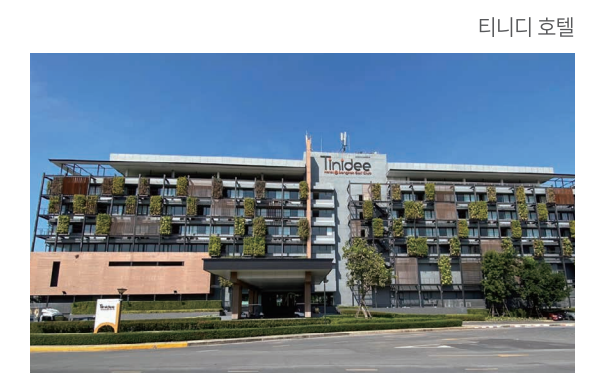
방콕GC

**티니디 호텔**  
티니디 호텔은 방콕 GC에서 함께 운영 중으로 태국의 주요 그룹중 하나인 MBK그룹에서 경영하고 있다.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고객 안내 데스크까지 완비되어 한국 고객들을 위한 편의가 좋은 점이 특징이다. 시설은 168개의 객실, 스파, 마사지, 미팅룸, 카페,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가라오케 시설 등 휴식을 위한 공간이 완비되어 있으며 회의와 세미나를 위한 최첨단 비즈니스 룸도 보유하고 있다. 🇰🇷

태국의 프라이빗5대 베스트 골프코스

2010년 개장한 리버데일 CC는 방콕 시내 빠툼타니 지역에 위치했으며 방콕GC와 나란히 함께 위치한 골프장이다. 신규 개장 골프장으로 나무와 그늘이 적지만, 골프장의 레이아웃이 아기자기하여 평범한 곳을 싫어하는 골퍼들에게는 또 다른 방콕 근교의 상급 골프장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다. 특히 페어웨이가 굴곡이 많으며, 난이도는 조금 높아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로 알려져있다. 또한, 15번 홀 파3홀에서 180야드 그린과 100야드 남짓의 아일랜드 그린 중 원하는 그린을 선택하여 라운딩 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 코스 정보: 18홀, 파 72, 7,006 Yards**
- 거대한 호수와 굴곡이 있는 레이아웃으로 설계 되었으며, 난이도는 상급으로 분류
  - 방콕GC와 인접한 위치에 마주하고 있어 36홀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장 설계자 Jonathan Morrow가 설계한 곳이다.



티니디 호텔



# 골프와 함께 즐기는 사우나

골프는 즐겁다. 골프장으로 출발하기 전, 소풍을 가는 것처럼 설레는 느낌이 우선 좋다. 골프장 도착 후 환복을 하며 골프장갑, 게임비 등을 준비하면 설레기까지 한다. 파우더룸에서 선크림을 바르는 행위는 흡사 전장에 나가는 용장이 칼날을 세우는 비장함이 들기도 한다. 자주든 오랜만이든 스타터에서 동반자와 인사를 나누면서 묘한 긴장감을 가지는 느낌도 나쁘지 않다. 첫 티샷을 위해 몸을 풀고 샷을 다듬는 과정은 흡사 100m 출발선에서 총소리를 기다리는 스프린터의 심정일 수도 있겠다.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 한국의 독특한 골프 문화 사우나는 후반전 골프

한국에서 골프의 백미는 사우나다. 골프를 치고 난 뒤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푸는 것은 골프 라운딩 만큼이나 즐겁다.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당일의 긴장감은 눈 녹듯 풀어헤쳐진다. 모 외국인 프로야구감독은 한국에만 있는 골프 후 사우나 문화가 후반전 골프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비단 골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행위의 선후에 항상 신체를 깨끗이 하는 목욕 재개를 통해 행위의 순결함과 비장함의 의지를 표해왔다.

## 퇴폐적으로 변한 목욕탕 문화가 로마제국의 멸망을 불러


목욕탕의 유래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다. 세계 최초로 알려진 대중목욕탕은 기원전 2,500년전 인더스 계곡에서 시작되었다. 구운 벽돌로 건설된 이 대형 목욕탕을 1,900년대 초 발견한 파키스탄 학자는 목욕과 청결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 있어 성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원전 300년 경, 로마인들은 본격적인 공중목욕의 문화를

향유했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성별,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즐기는 사교의 주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로마의 목욕탕은 퇴폐적으로 변해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후 대중 목욕의 전통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역마다 다른 관습과 에티켓으로 진화하여 문화를 형성했는데, 세계의 자작나무를 활용한 북유럽/러시아의 반야, 일본의 온천문화, 한국의 찜질방 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 한국 대중 목욕의 역사는 부산으로부터 시작

우리나라의 대중목욕 역사는 부산으로부터 시작한다. 삼국유사에 신라의 재상이 동래 온천에 입욕했던 기록이 최초로 남아있고 1,600년 이후부터 태조부터 영종에 이르기까지 동래 온양 온천을 치료와 휴식으로 자주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한국 목욕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태리 타월은 196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한국에 때밀이 문화와 더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때 수건은 부산에서 직물 공장을 하던 김필곤 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태리 타월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섬유를 만드는 기계가 이탈리아산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발명품 이태리 타월이 부산에서 발명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태리 타월의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태리 타월을 특허등록하고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은 김필곤 회장이다. 소위 떼돈을 번 것이다. 특허권 이후에는 송월타월에서 거의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고 이태리 타월로 대표되는 때밀이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 코로나로 잃어버린 골프 후 사우나는 골프의 또 다른 시작

탕에서 바라본 골프장의 녹음과 또는 석양을 바라보며 즐기는 망중한은 힐링 그 자체이다. 당일 함께 한 동반자들과 라운드를 복기하는 건 이만저만 재밌는 일이 아니다. 게임 중의 속상함을 따뜻한 물로 흘러보내기도 하고 승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동반자와는 바로 다음 라운드를 잡기도 한다. 식사를 어디서 할지 얘기도 나누고 라운드 중에 나누지 못한 개인사와 사업 얘기를 풀어헤치기도 한다. 골프만큼 즐거운 일이다. 코로나 기간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라운딩 후 샤워장 이용이 한동안 불가했다. 비지땀을 흘린 뒤 씻지도 못하는 건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철회 요구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었다. 골프의 재미도 반감되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샤워도 가능하고 탕을 운영하는 골프장이 대부분이 되었지만, 습관이 무서운지 개인적으로 아직 탕에 발을 잘 담그지 않는다. 잠시 잊어버렸던 후반 골프 18홀의 즐거움을 함께했던 동반자들과 골프장 사우나에서 나누고 싶다. 





# 다시 영화의 바다로, 100% 풍덩!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영화평론가

부산국제영화제가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위기를 뒤로 하고 3년 만에 정상적인 개최를 선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상영관 좌석의 100% 사용, 개·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 국내외 게스트 초청 등 모든 면에서 팬데믹 이전의 규모와 방식으로 영화제가 운영될 것임을 예고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7개 극장에서 총 353편의 영화로 관객과 만난다. 영화를 향한 열정과 활기 가득할 이 현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 당신이 영화 애호가라면, 당연히 아시아!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영화를 포함한 아시아 영화를 주목한 데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날 아시아 영화 산업의 흐름과 작품 경향, 주목해야 할 아시아의 신예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장으로 기능해왔으며, 영화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정수는 아시아 영화에 있다. 올해는 특히 이란 영화와 일본 영화를 추천한다. 가난한 가족을 위해 전기를 끌어오려는 이웃 남자의 노력을 그린 개막작 <바람의 향기>, 이란 영화의 거장이자 정치적 이유로 20년의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신작 <노 베어스> 등이 기대를 모으는 이란 영화다. 그리고 특별기획 프로그램 '일본 영화의 새로운 물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목하는 차세대 일본 감독 10명의 작품이 소개된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이을 일본의 다음 세대가 궁금하다면 이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_ 개막작 <바람의 향기>, 2\_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신작 <노 베어스>



2022 시네마투게더 멘토

### 영화인의 옆자리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면, '시네마투게더'

영화제에 찾아가도 만나고 싶은 영화인들이 멀리 무대 위에만 있어 실망했다면 당신은 아직 '시네마투게더'를 모른다. '시네마투게더'는 영화인들을 멘토로 초청해 관객과 함께 여러 편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행사다. 1명의 멘토가 10명 내외의 참가자와 한 팀을 구성해 영화제를 즐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최상의 멘토 라인업이 공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감독, <벌새>의 김보라 감독을 비롯해 달시 파켓과 남다른 영화평론가, 이다혜 영화저널리스트 등 총 16명의 멘토가 관객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 평소 OTT를 즐긴다면, '온 스크린' 섹션에 주목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국제영화제 중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를 소개하는 섹션 '온 스크린'을 신설해 화제를 모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과 <마이 네임>을 OTT에서 공개되기 전, 극장에서 먼저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해 반향을 일으켰다. 스크린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오늘날 영화 산업의 흐름을 발 빠르게 반영한 부산국제영화제의 기획력이 돋보였다.

올해 '온 스크린' 섹션은 상영작을 9편으로 확대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올 하반기 공개 예정인 기대작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소개된다. 특히 이준익 감독의 첫 SF 장르물인 <온더>, 미이케 타카시 감독의 <커넥트>,



3\_ 커넥트 4\_ 킹덤 엑소더스

그리고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20년 만에 최종편을 연출한 <킹덤 엑소더스>에 주목해보자.

### 우리 동네에서 영화제를 즐기고 싶다면, '동네방네비프'

마지막으로 영화제의 주요 무대인 센텀시티를 방문하기 어렵고, 우리 동네에서 이웃들과 편하게 영화를 보고 싶다면 '동네방네비프'를 추천한다. '동네방네비프'는 부산 전역 17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과 영화를 보는 생활밀착형 행사다. 각 구별 거점 공원, 광안리와 산복도로처럼 아름다운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야외 상영이 열린다. 깊어가는 가을밤, 가족들과 저녁 나들이를 하기에 더없이 좋다.



사진출처: 부산국제영화제



# 깊은 품격이 느껴지는 최신 명작 영화 추천

## <헤어질 결심>

### 상반된 존재가 만드는 사랑의 파고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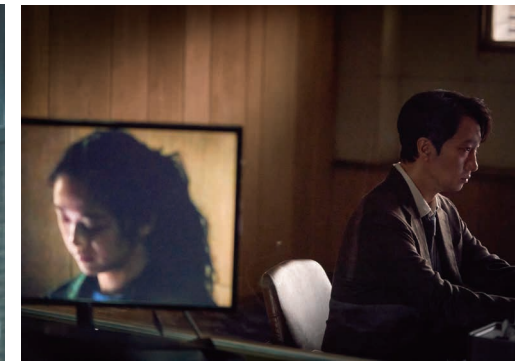
#### 한 공간, 두 인물

<헤어질 결심>은 범죄스릴러 형식을 빌린 멜로드라마다. 깔끔하고 품위 있는 형사 해준(박해일)은 기도수 사망사건의 참고인이자 유력 용의자로 망자의 아내 송서래(탕웨이)를 만난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그는 형사와 용의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서래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경찰로서 자부심을 잃었다며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그리고 13개월 후, 두 사람은 또 다른 살인사건의 형사와 용의자로 재회한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어 마침내 격정적으로 휘몰아치는 엄청난 감정의 파동에 넋을 잃는다. 영화의 엔딩에서 시작하자. 사위가 어두워지는데 해준은 해변에서 휘몰아치는 파도를 헤치며 서래를 찾는다. 그가 서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새어 나오는 절망, 그가 파도와 어둠에 삼켜질지 모를 불안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의 감정이 뒤섞이며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 에너지가 쏟아진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간 서래와 해준이 한 공간에 있다는 점이다. 서래는 해준의 발아래에 있다.



개봉 2022.06.29.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멜로/로맨스  
 국가 대한민국  
 러닝타임 138분  
 배급 CJ ENM



#### 상하의 움직임

감독은 <헤어질 결심>에서 상하 구조로 이루어진 공간과 움직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래는 살인자인가, 아니면 공교롭게 두 명의 남편을 잃은 불쌍한 미망인인가. 사실 이 질문은 무용하다. 그녀는 살기 위해 죽을 만큼 무서운 높이의 산을 오른 여인이며, 사랑을 위해 아득히 깊은 바다로 침잠한 여인이다. 아찔하게 높은 산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의 상하 높이차는 이 영화의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해준은 높은 곳에 올라 진실을 구하는 인물이다. 비금봉에 오르고, 끝없이 이어진 산복도로 계단을 오르고, 홍산오를 검거하기 위해 주택의 옥상으로 오르고, 서래를 감시할 때도 그녀의 아파트 맞은편 건물의 옥상에 있다. 그런데 저 아래의 어느 시선이 자꾸만 그를 올려다본다. 비금봉 아래 변사자 기도수의 눈, 옥상에서 떨어진 홍산오의 눈, 심지어 생선가게 좌판의 죽은 생선의 눈이 그를 올려다본다. 마치 높은 곳에서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 진실이라 확신하는 해준의 눈이 보지 못한 이면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듯하다.

#### 상반된 존재의 운명

한편 서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간병인 에이스와 살인사건 용의자 사이, 실수를 감추는 웃음과 형사를 향한 비웃음 사이, 파란색 옷과 청록색 옷 사이, 공교로운

여자와 불쌍한 여자 사이 어딘가에 서래가 있다. 한 단어로 정의되지 않는 그녀, 달리 표현하면 그녀는 다면적이다. 그런 그녀는 상대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아내나 엄마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느냐고 묻는다. 당신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나쁘냐고도 묻는다. 그녀의 질문은 인물과 관계의 이면을 상기시킨다.

뜨신 밥 냄새가 나는 가정 대 폭력이 만연한 가정, 의심하는 형사 대 의심 받는 용의자, 잠들지 못하는 사람 대 누구든 편하게 재워줄 수 있는 사람, 답을 구하는 남자 대 질문을 던지는 여자, 그리하여 표면의 객관을 보는 사람 대 숨겨진 이면을 읽는 사람이 바로 해준과 서래다. 서로 다른 극단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끌리는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자석에 있는 N극과 S극을 닮았다. 이 둘은 결합할 수 없다. 그렇기에 높은 곳에 올라 조망하는 해준을 사랑하는 서래는 필연적으로 보이지 않는 수평선 아래로 사라져야 할 운명이다. 이 높고 낮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상반되는 두 인물이 형성하는 자기장이 영화의 커다란 진폭을 만들어낸다. 끝내 두 사람의 사랑은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래는 질문으로, 의심으로, 보이지 않게 남는다. 그런 서래를 해준은 마침내 볼 수 있을까. 🧩



사진출처: CJ E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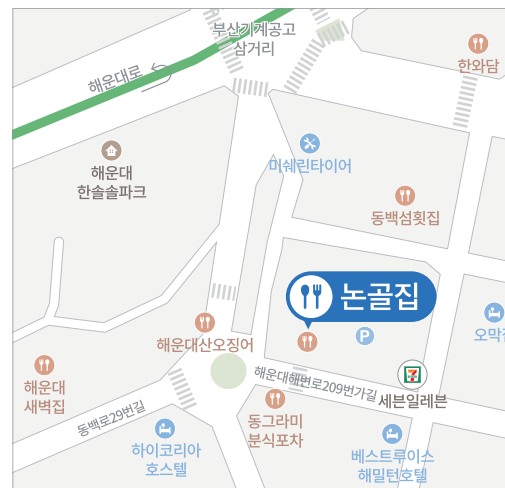
논골집 입구

## 30년 전통의 돼지 앞발 미니족 맛집 ‘논골집’

옛 해운대 그랜드 호텔 뒤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올해 딱 30년이 되었다는 논골집. 주 메뉴인 돼지 앞발 미니족에서는 30년 세월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는 맛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장인의 솜씨가 느껴진다.

### 포장마차부터 부산 최고의 미니족 맛집으로

1993년 옛 해운대 그랜드 호텔 뒤 부지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경북 논골의 지명을 따서 논골집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시작했다는 이미향 사장님. 당시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남달리 좋아서 시작한 포장마차는 주변 상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주 한잔하러 찾아 오는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포장마차에서는 지금의 논골집을 있게 한 돼지 앞발 미니족을 비롯하여 20여종의 다양한 음식을 팔았다. 포장마차에서 15년 운영한 이후 지금 현재의 위치로 가게를 옮기면서 메뉴를 줄이고 돼지앞발 미니족 전문점으로 계속 장사한지도 15년, 논골집은 총 30년이란 시간동안 많은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맛집이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09번가길 3



1\_ 논골집 가게 내부  
2\_ 논골집 족발 앞발(미니족) 한상차림  
3\_ 1차로 삶아낸 후 건조중인 미니족

### 정성이 가득 담긴 족발

논골집의 족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족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흔히 논골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 오는 손님들은 논골집을 얘기돼지 족발 맛집으로 알고 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논골집의 족발은 얘기돼지 족발이 아닌 일반돼지 앞발의 발목부위를 자르고 선별한 미니족 부위다. 미니족 부위를 파는 논골집이 맛집인 이유는 조리 과정에서 많은 정성이 깃들기 때문이다. 사장님이 조리 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미니족의 깔끔함과 청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침마다 미니족의 털을 토치로 제거한 후 1차로 큰 솥에 삶아 기름제거 및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건조된 족발을 2차로 특제간장양념 소스에 삶으면 논골집 특유의 족발이 완성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지만 더 깔끔하고 정성이 스며든 맛을 위해서 매일 같이 행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있는 미니족만의 특유의 맛

미니족 부위는 흔히 생각하는 족발처럼 살코기가 많은 부위는 아니다. 하지만 족발 특유의 콜라겐이 모여 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총 2번을 삶아낸 만큼 잡내가 하나도 없고 특제소스의 맛이 족발에 은은하게 스며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맛집

논골집에는 다양한 손님들이 단골로 오는데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실제로 가게에 들어서면 벽면에 연예인들의 사인이 뽁뽁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기업인들도 단골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대원플러스 그룹의 최삼섭 회장이 논골집의 단골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반손님들 중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방문하는 손님이 있다며, 올 때 마다 빵을 사들고와서 전해 주며 이 집 족발 먹게 정말 행복하다는 덕담을 해주기도 하고, 서울에서 너무 생각나는데 족발을 택배로 보내주면 안되겠냐는 문의를 하는 손님도 많다고 한다.

### 오랜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음식점으로

최근 들어 아들과 함께 장사를 하며 여러 노하우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하는 사장님은 오랫동안 연구해온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변함없는 맛으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히며 인터뷰를 마쳤다.



논골집 이미향 사장님



# 젊음을 덕질하면 생기는 것들

## 이상은 <언젠가는>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배우 김영옥은 1937년생이다. 그녀는 가수 임영웅의 덕후다. 임영웅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녀는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했다. 단언컨대, 그녀는 이 덕질 때문에 끈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아티스트에 대한 덕질은 그 젊음이 가진 유연성과 겸허함도 덤으로 주기 때문이다.

김영옥 배우가 '임영웅'을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녀는 임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욕망은 대상이 아니라, 다만 원인만 있다고 했다. 임영웅은 김영옥으로 하여금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김영옥 배우는 그렇게 생각할 리 없겠지만, 그녀에게 임영웅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스타가 아니다. 그녀에게 욕망의 원인이 필요했던 순간, 만약 그녀 앞에 임영웅이 아니라 다른 이가 나타났다면, 그녀는 그 사람에게 입덕했을 것이다.

왜 노년의 여성이 청년 아티스트에게 입덕할까. 상실한 젊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임영웅이란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젊음을 임영웅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고 임영웅을 마냥 좋아할 수도 없다. 그녀 스스로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시간' 때문이다. 노화는 젊음을 덕질하게 만들지만, 이 덕질은 자신이 결코 젊지 않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가혹한 것이기도 하다.

김영옥 배우는 30대부터 노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을 비용으로 밥벌이를 했을 터, 그녀에게 젊음을 향한 '덕통사고'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덕통사고는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팬이 되거나 덕질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랑이 교통사고처럼 시작되는 것처럼, 덕질도 덕통사고로 시작된다. 그녀에게 덕질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이기도 할 것이다.

중년남자가 아이돌 가수를 덕질하는 이유도 젊은 시절, 너무 일찍 젊음을 반납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젊었을 때, 우리는 젊음을 몰랐다. 이상의 <언젠가는>의 첫 소절,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가 소환된다. 이 가사는 또한 버나드 쇼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젊은 날, 젊음은, 바로 그 젊음 때문에 낭비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젊었을 때 충분히 젊지 않았다. 어쩌면 '젊음'을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는지도 모른다.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양육을 하고, ...,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다시 젊음을 비용으로 지급하고. 마치 젊음을 효율적으로 낭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젊음을 잃고 보니, 젊음이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목직하게 깨닫는다. 젊음을 덕질하면서도 그 젊음 앞에서 기가 죽고 위축된다. 그렇더라도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처럼 독불장군으로 사느니 아름다운 젊음을 욕망하고 덕질하는 것이 낫다. 자족적으로 살면서 급진적으로 끈대가 돼 가느니, 고통스러운 향유를 선사하는 젊음에 대한 덕질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언젠가는>의 가사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그런 회한에 젖는 것이 더 낫다.

<언젠가는>은 가사 막바지에 환상도 하나 남긴다.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그대로". 환상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안다. 어떻게 헤어진 모습 그대로 만나겠는가. 알다시피, 노화는 치명적이다. 결코 '헤어진 모습 그대로'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 환상은 의미가 있다. 슬프지만, 이 환상이 우리를 덜 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노화는 우리를 경화시키는 것이고, 이 경화를 더디게 하는 것이 이런 환상인 것이다.

이 노래는 진실도 하나 던진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진실이다. 우리의 '희망'도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에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젊음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 젊음에 대한 욕망, 젊음에 대한 덕질은 끈대가 되어 가는 것을 늦춘다. 그리고 김영옥 배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녀의 얼굴은 임영웅에 대한 덕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임영웅에 대한 덕통사고 이후, 그녀는 더 화사해졌고 더 유연해졌다.

10월, 덕통사고 일어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약간의 고통과 함께 하는 이 덕질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 두 번째 봄이다

알베르 카뮈(1913-1960) 프랑스 작가

범어사의 가을  
출처: 부산광역시



캡틴장의 새로운 캐릭터!  
"제임스본드 같은 멋진 벨"



by 웹툰작가 배민기

# Story of 캡틴 장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캡틴장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국제광고제가 열렸는데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



부산 국제광고제 개막식(2022.8.25.)

가덕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다함께 머리 맞대어 봅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현황점검 정책간담회(2022.8.26.)

명문사학 동서대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서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식(2022.9.6.)

아이고 회장님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좋습니다^^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2022 개최식(2022.8.30.)

## #웃는 모습이 멋진 캡틴장

위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산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예방  
(2022.8.25.)

위원장님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예방(2022.8.26.)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부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 이임인사  
(2022.8.30.)



고석진 부산세관장 신임인사(2022.9.7.)

부산 기업 수출입 잘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십시오^^



2030 Busan World Expo Latest News Updates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In Franc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산업부 장영진 1차관,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은 프랑스 파리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국을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부산만이 가진 차별점과 개최 역량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세계박람회 개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는 유치계획서 제출 이후 올해 말에 있을 3차 경쟁PT와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11월쯤 BIE 총회를 통해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What's In The Book???

(feat. 유치계획서 주요 내용)

엑스포 Summary

- 개최기간** 2030. 5. 1.(수) ~ 10. 31.(목) (총 184일)
- 개최장소**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3만㎡)
- 주 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부 제** 인류가 직면한 주요 위기 양상에 맞추어 부제를 3가지로 세분화
  - ①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 ② 인류를 위한 기술 (Technology for Humanity)
  - ③ 돌봄과 나눔의 장 (Platform for Caring & Sharing)
- 참가규모** 3,480만 명 (내국인 3,160만 명, 외국인 320만 명)  
160개 국가, 20개 국제기구, 15개 NGO, 40개 기업
- 총 사업비** 약 6조 5천억원 (5,727백만 달러)

부산's Different Points Than Other Competing Nations

경쟁국 대비 대한민국 부산만의 6가지 차별화 포인트 제시  
차별화된 포인트를 강점으로 활용하여 BIE 170개 회원국 관심 유도 및 지지 획득

- ①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열린 엑스포  
박람회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 세계인이 언제 어디서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현
- ②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엑스포  
박람회장 조성시 친환경 기술 적용 및 녹색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탄소중립 엑스포 구현
- ③ 역대 최대 규모의 개도국 지원을 통한 함께하는 엑스포  
한국형 ODA와 함께 개도국별 지원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계기 마련
- ④ 최신 기술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보장하는 신기술 엑스포  
AI, 드론, 로봇, 6G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박람회 구현
- ⑤ 세계인이 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문화 엑스포  
다양한 K-Contents 활용을 통해 세계인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장 제공
- ⑥ BIE 100주년 기념 및 박람회 역사를 기록하는 엑스포  
BIE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박람회 레거시 구축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노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포스코 그룹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에 나선 GS 그룹



베를린 IFA 기간 동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 삼성전자



야구·축구단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사격하는 현대자동차 그룹



# K-푸드의 글로벌화를 앞장서 이끌어 온 식품수출업계의 리딩 컴퍼니 희창물산(주)



2022년 현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나라 음식료품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희창물산(주)은 1980년 설립한 이래로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전파해온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이다.

전 세계 30여개국에 3만개가 넘는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희창물산은 국내는 물론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부산 남부민동에 자리잡은 본사를 비롯하여 인천, 용인에 식품 보관 및 냉동창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내 식품들을 세계에 수출 해온 결과 30개가 넘는 국가에 거래처가 있고 협력업체는 900여 곳에 달한다. 현재 수출하는 식품이 바코드 기준 3만 여개가 넘는 정도로 희창물산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희창물산의 권중천 회장

### 1970년대 중등 식품료 수출부터 쌓아온 노하우

희창물산의 권중천 회장은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중동에 진출해 음식료품을 수출하였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파견 근로자를 겨냥하여 시작하였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을 개발하여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출해오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우리 봉어빵과 빵튀기를 미국에 가져가서 완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수출 경험을 통해 남다른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렇게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우리 농수산품의 세계화에 앞장서 기여해오고 있다.



세계 2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는 명품 K-FISH 명란젓



희창물산의 PB제품들



철저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 기업  
희창물산이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경영체계 확립, 무한경쟁, 매뉴얼화라는 확고한  
경영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및 컨테이너 부족으로 수출기업  
들이 혼란을 겪을 때에도 선제적으로 해외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바이어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려움에 발 빠르게 대처  
하였다. 이러한 대처는 40년 이상 쌓아온 해외 네트워크와  
정보를 바탕으로 적기에 상품을 공급하는 희창물산만의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언택트  
마케팅을 통해 유튜브, SNS로 상품을 효율적으로 홍보  
하며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수산물 3000만불 수출탑, 식품 1억불 수출탑, 금탑산업훈장 수상  
권중천 회장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가운데 수산물  
가공 만큼은 희창물산이 최고라고 자부한다. 실제로 희창  
물산의 수출액 1,300억 중 30%이상이 수산식품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의 1%를 넘는다고  
한다. 아울러 국내 최초 K-Fish(국가 수출브랜드) 인증 등  
14개 자체브랜드 개발, 1,000여 종의 수산식품 수출을  
통해 지난해 수산물 3,000만 달러 탑을 수상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부산경남 수출기업 최초로 1억 달러 수출탑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전국 9개 지역 생산자 단체와 상생  
협력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경제 성장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점점 높이 평가받아 올해 4월 제11회 수산인의날 기념식  
에서 기업인들의 최고의 영예중 하나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제11회 수산인의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권중천 회장



대한민국해양대상 (2017. 12. 18)    안전한 위생 시스템 HACCP 인증마크    부산명품 수산물



1억불 수출탑    어육 소시지 제조방법 관련 특허증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1, 2\_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



냉동냉장 업계 발전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

권중천 회장은 2015년부터 냉동냉장수협 조합장을 역임해  
오며 냉동냉장업계의 신기술 보급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몇 개 기업이 독점하던 냉동냉장창고 전산프로그램 시장  
에서 냉동냉장수협이 자체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보급하여 업체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검역 검사 절차 간소화 등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냉동냉장업계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냉동수산물과 관련된  
신기술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계에 전파하고자 냉동  
업계소식지 “冷家”를 매월 전 수산업계에 무료로 보급  
하고 있다. 권중천 회장이 냉장냉동수협조합장을 이끄는  
동안 조합의 경영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전국의  
수협 중에서 경영평가가 가장 좋은 수협으로 발돋움하였  
다고 한다. 권회장은 냉동냉장수협 조합장 외에도 현재  
부산경남세관 행정협의회 회장, 부산수산정책포럼 고문,  
수산물품질관리 정책협의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가는 기업인

권중천 회장은 희창물산을 경영해오면서 기업 경영  
이외에도 각종 사회 공헌 및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인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며, 부산 사상구와 서구 장학재단,  
사랑의 연탄 나누기 후원 행사 등을 비롯하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기부 및 후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권회장의 고향인 경북 예천군민 장학재단도  
오랜기간 후원해왔으며, 예천군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오고  
있다.



희창물산의 14개 자체브랜드



#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는 (주)아디아랩 (AIDA Lab. Inc)

(주)아디아랩은 2019년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관리 및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아디아랩의 ‘아디아 (ADIA)’는 ‘Adaptive Data Intelligence for Asset Analytics’의 줄임말로 아프리카 남동부의 스와힐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업명처럼 (주)아디아랩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여 그 가치를 세상에 선물한다!’라는 비전 아래, 최근 확장되어 가고 있는 빅데이터를 관리·가공·활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2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품 전시회에 참여한 이재철 대표와 (주)아디아랩 직원들



(주)아디아랩의 이재철 대표

## 기술로 세상을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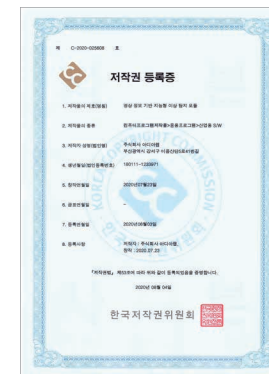
(주)아디아랩의 이재철 대표는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로 1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27편 이상 저술할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공인이다. 그는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R&D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주)아디아랩을 창업하고 2020년에는 벤처기업 등록에 성공하였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선물하는 것이 이재철 대표의 궁극적인 창업의 목적이다.

## 탄탄한 기술력의 보유, 변화의 시작!

이재철 대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체감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일상의 변화가 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객 안전관리와 자산관리를 선보이기까지 연구를 통해 많은 지적재산권을 보유, 확대해 나갔다. (주)아디아랩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 8건(등록2, 출원6)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7건, 상표1건(등록1)을 보유했다. 이 기술로 (주)아디아랩이 선보이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은 지능형 머신비전 시스템이다. 지능형 머신비전 시스템은 영상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객체탐지 및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된 응용 분야는 스마트팩토리, 감시카메라와 보안 시설 분야, 스마트 시티 등으로 다양하다. (주)아디아랩의 지능형 머신비전 시스템은 단순한 영상 전송 및 분석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과는 다른



인면인식 알고리즘  
저작권 등록증



영상 정보 기반 지능형 이상 탐지  
모듈 저작권 등록증



위험지역내 작업인원 인식모듈  
저작권등록증



아디아랩 증장비 차량 안전 관리  
시스템 특허증





1, 2\_ 이노폴리스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획기적인 영상 전송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객체탐지 및 분석기술이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자주 결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아디아랩의 기술 응용은 활발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경계감시 시스템을 바꾼다**

(주)아디아랩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Radar 경계감시 시스템으로 기존의 경계감시 현장을 바꾸고 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Radar와 최신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차세대 경계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한 신기술이자 융합 기술의 산물이다. (주)아디아랩이 선보이는 인공지능 경계감시 시스템은 Radar(C-band, X-band, K-band)와 PTZ CAM을 활용한 방식으로 레이더를 통해 움직이는 객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객체의 좌표를 PTZ CAM에 전달된 영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객체를 탐지하여 자동 추적 감시하는 기술이다. 이재철 대표는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을 기존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자유로운 연동으로 기존 경계시스템의 지능화를 구현함으로써 경계감시 시스템의 지평을 열었다. 인공지능을 토대로 경계감시 시스템을 변화



3\_ 중장비(지게차) 안전관리 시스템  
4\_ 안면 인식 시스템

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adar, TOD, 근거리 감시 카메라 별도 운용 및 장비별 감시인력을 줄여 효율적이며, 자동화된 경계감시 시스템을 구현한다. AI기반 영상분석(객체탐지 및 식별)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상황 알람 제공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객체탐지가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고난도의 기술과 융합하여 4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울 전망이다.

**인공지능, 품질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주)아디아랩은 인공지능 경계감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흐름 생산 공정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높은 정확성과 검사 속도가 바탕이 되어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준다. 실제로 (주)아디아랩의 인공지능 품질관리 시스템은 (주)동진테크윈에 납품되어 품질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형제품의 라벨 누락 탐지와 라벨 오사용 탐지를 인공지능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밖에도 해당 기술은 연산메탈(주)에서 컬러 강판 지능형 외관 불량 검사 시스템, (주)인베스티에서 치수 불량 검사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 품질관리 시스템은 스마트팩토리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다방면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아디아랩의 인공지능 품질관리 시스템은 많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신기술 제조업과의 융합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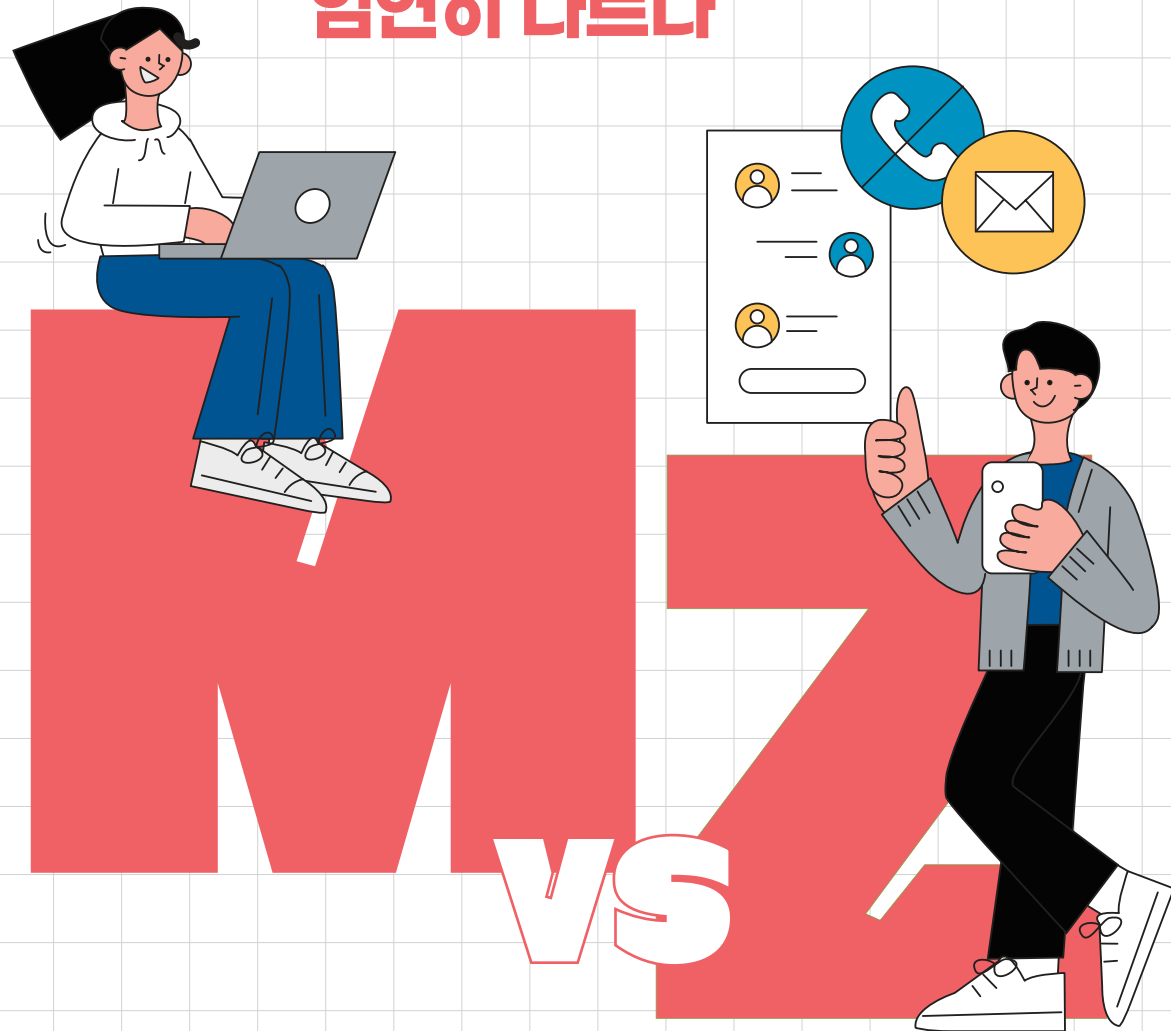
(주)아디아랩의 이재철 대표는 “기존 개발된 지능형 머신비전 시스템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신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기술인 고객 예지 및 건전성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주)아디아랩의 끊임 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이루어낼 국내 제조기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



5\_ 철강제품 표면 치수 검사 시스템의 현장테스트[(주)인베스티]  
6\_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의 현장시연(대한민국 육군)



# M세대와 Z세대는 엄연히 다르다



요즘 들어 어딜 가든 흔히 들어볼 수 있고 이슈의 중심에 있는 MZ세대, 많은 기업들과 언론에서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떠오르는 키워드로 1982년~1997년 출생의 Millenium(밀레니엄)세대와 1998년 이후에 출생한 Generation Z(제너레이션Z)세대를 합친 단어이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두 세대를 합치는 것은 엉터리 세대론이라며 두세대 사이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 M-Z세대 과연 가까울까?

두 세대 사이 분명 비슷한 점들도 있지만 MZ로 묶었다고 해서 같은 세대라는 오해는 세대 이해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어떤 다른 모습들이 있을까?

## M세대는 PC Z세대는 스마트폰

M세대의 경우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던 때에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온라인 소통을 시작했으며 온라인 기반의 게임들을 PC방에서 많이 즐기기도 했다. 반면 Z세대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빨리 접했으며 전자기기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Z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칭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활용하며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에 더 익숙한 것이다.

## 대세 vs 취향

M세대의 특징은 짧은 시간 내에 다수가 즐기고 있는 '대세' 콘텐츠를 따라하고 가장 유행하는 것들에 주목하여 따르는 경향이 있다. 과거 유행했던 Y2K 패션만 봐도 알 수 있다. Z세대는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겨왔기 때문에 대세에 따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취향에 맞는 것들을 소비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소수와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생각으로 취존(취향 존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 실속? 아님 편의?

보통의 M세대들은 실속에 초점을 두어 평소에 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중고 거래나 애플테크 등을 통해 알뜰하게 돈을 아끼고 모아 한 방에 특급 호텔에서의 식사, 명품 시계 등 과감한 소비를 즐긴다. 그와 반대로 Z세대는 편의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돈을 한푼 두푼 모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빠르고 간편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단히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선호한다.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도 M세대는 유명 연예인, Z세대는 인기 유튜버로 다르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만, 하나, 둘 뜯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편의상 두 세대를 묶어서 MZ로 불렀던 것이 어쩌면 각자의 특징을 무시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것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M과 Z세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 🧠



MZ세대의 문해력 논란

# ‘심심한 사과’를 아시나요?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는가?  
 먹는 사과, 미안하다는 사과, 기업 로고 등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최근에 사과 하나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져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게 된 일이 있었다.  
 과연 이걸 무슨 사과일까?



심심한 사과....ㅎㅎ  
 이것때매 더 화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으셔야했나요..?

• 甚深 •

### ▼ 심심한 사과 ▼

최근 서울의 한 카페 측에서 올린 사과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 카페는 공식 SNS를 통해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게재했다.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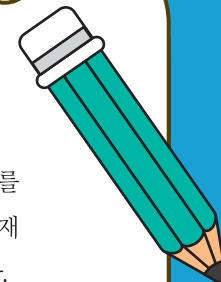
이 사과문을 본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은 살벌했다, “이것 때때 더 화가 난다!”,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하다” 등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에 분노했다. 사과문에 사용한 심심한(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의 뜻을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뜻의 동음이의어로 잘못 이해 하면서 문해력 논란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SNS 실시간 트렌드에는 ‘심심한 사과’가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문해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 ▼ 사흘부터 금일까지 ▼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는 기사를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나?”며 뉴스 오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 밖에도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해서 과제 제출을 못 한 대학생 사연, ‘유선상’을 사람 이름으로 착각하는 사연 등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었다.

### ▼ 문해력 논란 뭘 때문에? ▼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이다. 최근 문해력 논란은 한국어 단어의 70%를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 교육과정이 바뀌어 오면서 현재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의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요즘은 시대적 변화가 빠르다 보니 세대와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와 받아온 교육 또한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세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문해력 논란을 단순 문해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





# 달러는 이제 누구를 등에 업을 것인가 금에 이어 석유와도 이별하는 달러,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글\_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진 투자컨설팅 대표



알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은 엄청난 빚쟁이 국가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법으로 국가의 채무한도를 정하는데 ‘법정채무한도’가 이미 30조 달러를 넘었다. 3경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는 뜻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은 절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또 갚을 생각도 없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 나라의 통화는 쓰레기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9월에서 나타난 ‘킹달러’에서 확인됐듯 달러는 건재하다. 지난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이후 찍어낸 천문학적 액수의 달러가 현재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지만,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달러에 안달을 내고 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으니까” 혹은 “달러가 기축통화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글썸. 지금의 달러를 만든 건 2명의 ‘파트너’ 때문이었다. 그런데 달러는 이제 새로운 친구를 찾아야만 한다. 만약 새로운 파트너가 앞선 2명의 친구만큼이나 강력하지 않다면 달러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 #1 달러의 첫 번째 파트너, 금 “달러가 아닙니다. 금이에요, 금!”

190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패권은 영국이 갖고 있었고 기축통화는 당연히 파운드화였다. 이후 세계 역사는 2번의 슬픈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렇게 유럽은 힘이 빠졌고, 이 빈틈을 미국이 치고 들어갔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고, 최종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는 44개국의 금융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바로 이때 미국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간다.

“이제 세계 경제를 책임질 국가는 미국 뿐입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발이 엄청났다. 아니 미국이 어딜 감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이런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묘책(?)’을 꺼낸다. “여러분 달러가 아니라 ‘금’입니다. 금본위(금태환)제도를 이행합니다. 35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 창고에 금 1온스를 저장하겠습니다. 금, 금이라고요!” 미국은 첫 번째 파트너로 금을 등에 업었다. 그제서야 다른 나라들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한다는 데 동의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금을 미국에 보관시키기까지 했다.

## #2 달러의 두 번째 파트너, 석유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

1950년~1960년대에 걸쳐 미국은 급성장했고, 달러의 위상도 높아져만 갔다. 그러던 중 베트남 전쟁이 시작 되는데, 엄청난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베트남을 제압하지 못했다. 급기야 60년대 말에는 미국의 재정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자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중대 결정을 내린다. 1971년 8월, 금태환제도를 종료해버린 것.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찍을 때 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달러를 가져와도 금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결정으로 달러를 발행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반발이 거셌다. 그간 달러를 사용한 건 금 때문 이었는데, 스스로 달러를 찍어낸다?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달러는 심각한 위기를 맞는데, 이때 달러는 두 번째 친구와 동맹을 맺는다. 바로 ‘석유’였다.

1970년대 초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OPEC(석유 수출국기구)의 국가들은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완성하면서 강력한 오일 패권을 쥐게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중동전쟁에서 때번 패하면서 군사력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미국은 이것을 노렸다. 1974년 6월,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 장관은 파이잘 사우디 국왕과 ‘석유 달러결제 협정’을 체결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수 물자를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댓가를 얻어낸다. 바로 “세상의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조항이다. 달러패권은 석유를 등에 업으면서 더 강력해졌다. 석유는 세계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석유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달러는 50년을 달려왔다.

## #3 달러의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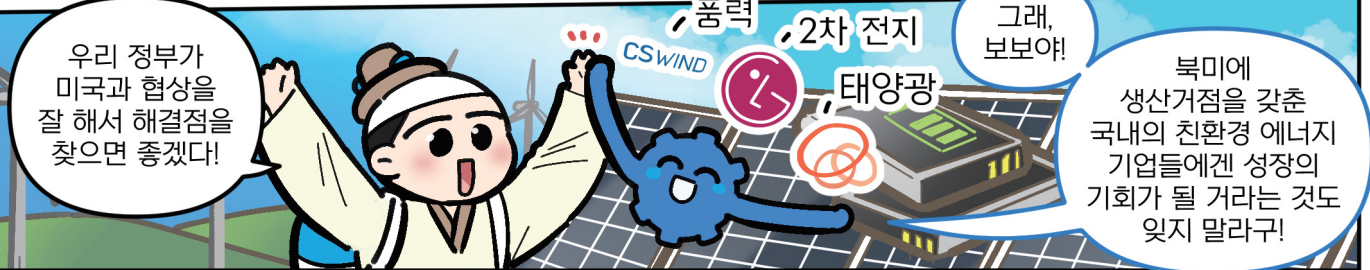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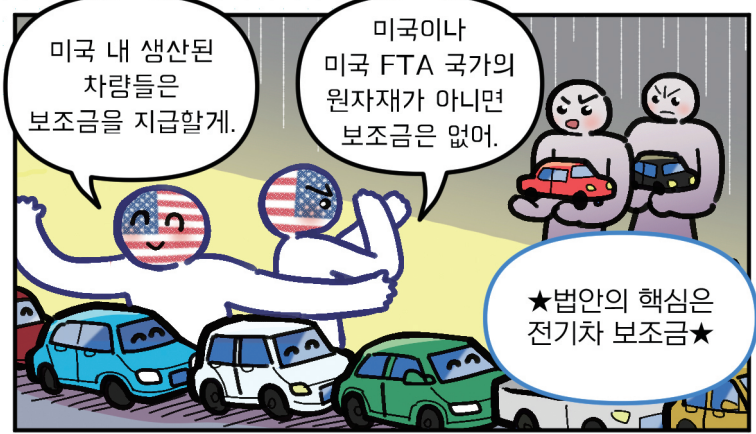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 미 달러화는 엄청난 딜레마에 봉착했다. ‘석유 시대’가 저물기 때문이다. 2050년이면 탄소중립 세상이라 하고, 당장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중단이 시작된다. 이미 산유국들은 미국에 강력 반기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해달라고 애원해도 들은 체 만체다. 그들도 알고 있다. 석유 팔아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시기 라는 걸!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심지어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석유 결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굳이 ‘달러’가 아니더라도 석유를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달러는 지금 금, 석유에 이어 세 번째 파트너를 물색 중이다. 다시 금이나 은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탄소배출권’이 후보로도 오른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모른다. 게다가 이제 달러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디지털 달러는 분명 최고의 파트너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세간의 의구심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최근 ‘킹달러’ ‘달러초강세’ 등 달러 몸값이 상한가를 치고 있지만 필자는 이제 곧 역설적인 약세로 접어들 것이라 통찰한다. 🧩



#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림 슝트빔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지난 8월 16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보완하여 만든 법으로 미국 내 급등한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하고 노인 의료보험 제도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처방약 비용 인하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는 예산은 대부분 태양광, 풍력 기업의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제공, 신제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신제품 전기차 이어야 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과 미국 FTA 체결 국가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배터리 주요부품의 미국 제조비율 또한 50%(단계적 확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서 점유율이 높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며, 곧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분야 수혜 예상**

이번 법안으로 북미에 생산 거점을 갖춘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상황

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전기차 제조 업체는 빨간불**

반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기차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시장의 성장세가 가장 빠른 북미 시장에서의 현재의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까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도 단기적으로 북미 판매량 감소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완성차의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연간 최대 10만대 수준의 생산 물량이 해외로 이전돼 공급망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애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자명한 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맺어왔으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섭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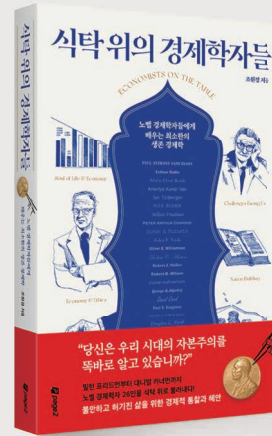


**01** 믹스  
안성은 | 더퀘스트 | 18,800원

저자는 10년 넘게 광고 기획자, 브랜드 마케터로 일해오면서 수많은 히트작을 관찰하고 또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 세상의 히트작과 성공의 중심에 ‘믹스(Mix)’ 전략이 있음을 발견했다. Old와 New, A급과 B급, 본캐와 부캐, 상식과 비상식, 어른과 아이, 기술과 인간... 이것들을 섞는다.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도무지 어울릴 법하지 않은 것들인데, 막상 붙여보면 놀랍도록 멋진 결과물이 나온다. 이질적인 두 사물의 조합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발생한다. 지금껏 보지 못한 ‘낯선 물건’이 탄생하고 ‘대박’이 나온다. 그렇게 ‘최초’가 되고, ‘차별화’를 이루고, 열광하는 ‘팬’을 만든다. 그림을 그릴 때 아무 색이나 섞는다고 멋진 색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색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 ‘공감’이 중요한 것이다. 섞어서 ‘다름’을 구현하되, 반드시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종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감을 끌어내는 영리한 믹스의 선수들을 책에서 만나보자.

**02** 세븐 파워  
해밀턴 헬머 | 한빛비즈 | 18,500원

모든 기업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유명한 기업들의 성공 뒤에는 급격한 변화가 몰고 온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결정적인 전략적 선택들이 있었다. 이 중요한 선택들을 그려칠 경우 기업은 거둬드는 고통에 직면하거나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개되는 상황에 전략을 끊임없이 맞추어야 한다. 장황한 계획 사이클도, 어떤 외부 전문가도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전략의 본질(Stratgy)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실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비즈니스 조인자로, 주식 투자자로, 교수로 수십 년을 보낸 저자 해밀턴 헬머의 결론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이 결론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기획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라는 파스퇴르의 유명한 격언이다. 전략은 분석적 요소로서의 역할이 아닌 현장에서 ‘준비된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 책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전략적 지위 7가지를 다루고 있다. 이제 ‘실리콘밸리 최고의 비밀’이라고 불리던 7파워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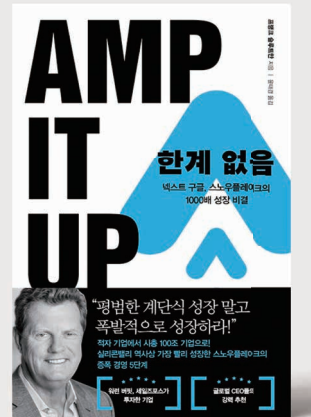


**03**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조원경 | 페이지2 | 18,500원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맞이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각종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대량의 돈 풀기와 이것이 낳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상이 되었다. 끝없이 올라가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부동산 시장에는 냉랭한 찬바람만 분다.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가운데 모두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26인과 그들의 이론을 우리의 식탁 위로 불러내 생생한 현실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한다.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대니얼 카너먼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원리에 대해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다. 저자 조원경 교수는 세계경제뿐 아니라 최근 국내의 상황을 경제원리와 엮어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낸다.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의 기초 지식을 쌓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는 눈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04** 한계 없음  
프랭크 슬루트만 | 한국경제신문 | 18,000원

“저성장 시대, 한계를 넘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보여주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급격히 성장한 기업이 있다. 워런 버핏도 이 기업을 눈여겨보고 기술주와 IPO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깨고 과감히 투자했다. 세일즈포스 역시 빠르게 투자하며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바로 전 세계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저장 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의 이야기다. 이 책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범함을 거부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낸 스노우플레이크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또한 스노우플레이크 창업가들도 하지 못했던 업적을 이뤄낸 CEO 프랭크 슬루트만이 직접 자신의 리더십 철학과 조직의 폭발적 성장 비법을 담은 ‘중폭 프로세스’를 낱알이 공개한다.



**05** 골드플레이션  
양배리 | 경이로움 | 18,000원

이 책은 금과 은 투자 전문가로 한국금거래소 금은 투자 교육 강의, 한국은거래소 지원 교육 강의를 진행한 저자가 그간 자신의 투자 경험과 다양한 이론을 담은 책이다. 쉬운 설명과 각종 자료로 구성되어 안전자산인 금과 은 투자에 관심을 둔 투자자와 주식, 부동산 외의 투자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려는 모든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금과 은은 모든 투자자에게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금과 은이 왜 안전자산이며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저자는 그 원인을 사람들이 돈과 화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이 책은 화폐와 ‘진짜 돈’인 금과 은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제 화폐가 아니라 금과 은에 투자해야 할 때임을 이야기한다.





**(주)와이씨텍**

**추석 맞아 5,000만원 상당 ‘사랑의 쌀’ 전달**

(주)와이씨텍은 9월 5일 부산진구청에서 추석을 맞아 부산진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유기농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되는 쌀은 10kg들이 총 1,570포이며 각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저소득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BNK금융그룹**

**호우피해 지원 성금 1억원과 행복우산 1만개 기부**

BNK금융그룹은 9월 6일, 본사에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특별 성금 1억원과 행복우산 1만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액 전달돼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지원, 이재민과 피해주민에게 구호물품 제공 등 일상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 제작한 행복우산 1만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주)동일스위트**

**추석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전달**

(주)동일스위트는 9월 6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추석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동일은 추석을 맞아 장애인복지사업, 노인 무료급식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부산진구, 사하구, 기장군 등지에 총 1억여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향토건설사인 (주)동일과 (주)동일스위트는 지난 32년 동안 지역 내 저소득 가정, 홀몸어르신 등에 대한 기부와 지역 사회공헌 활동,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던 중 2015년 사회복지법인 동일을 설립했다.



**대선주조(주)**

**부산 지역 축제 활성화 위해 5억원 지원 협약**



대선주조(주)는 9월 13일 부산시청에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5억원의 연간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부산의 각종 축제를 후원하는 민간 기관 중 최대 규모이며, 대선주조(주)는 2005년부터 17년째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선주조(주) 조우현 대표는 “부산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운철강(주) 등 8개 지역 기업**

**부산기업 8곳, 자연재해 이재민 돕기 특별성금 전달**



세운철강(주), (주)골든블루, 선보공업(주)을 비롯한 지역기업 8곳은 9월 13일 부산시청에서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억 7,000만원 모금에 동참하고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늘 도움을 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도 꾸준히 사회공헌 사업들을 펼치는 기업 대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재해복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제2차 '구인·구직 JOB매칭 데이'**



부산상공회의소는 9월 14일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지역기업들의 기술 인재 수요를 채워주기 위한 제2차 「구인·구직 JOB 매칭데이」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6개 지역기업은 다양한 직무 분야에 모두 59명을 모집했다. 구직자는 57명으로 지역기업과 총 108 차례 현장 면접을 실시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속해서 참여 기업을 발굴해 지역기업들의 전문기술 인력 수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오는 11월 2일 상의홀에서 제3차 구인·구직 JOB 매칭 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경성리츠

저소득 가정 아동에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 기탁

(주)경성리츠는 9월 14일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부산지역본부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경성리츠 채창일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고액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부산회장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원,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은산해운항공[주]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수상



은산해운항공(주)은 양재생 회장이 9월 1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로 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이상 기부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양재생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산해운항공(주)은 최근 동명대에 인재육성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하는 등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 가족 6명 ‘나눔 명문가’ 가입

(주)성우하이텍은 9월 15일 이명근 회장과 부인을 포함한 가족 6명이 동시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이명근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가입소감을 밝혔다.



동아플레이팅[주]

동명대에 장학금 1,000만원 기부



동아플레이팅(주)과 매일마리(주)는 9월 20일 동명대에 각각 1,000만원씩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장학금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재학생과 앞으로 신설될 학과 학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두 회사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와 지속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동명대에 꾸준히 기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화승케미칼

‘오토살롱위크’서 프리미엄 카케어 ‘카루미’ 선보여

(주)화승케미칼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 전시회 ‘2022 오토살롱위크’에 참가해 프리미엄 카케어 브랜드 ‘카루미’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카루미’는 ‘Car(차)와 Luminous(광택)’의 합성어로 개성있게 차를 빛내고 꾸미고 싶어 하는 카 라이프스타일 프리미엄 브랜드다. 26년간 화학소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처음 론칭했다. (주)화승케미칼은 카샴푸, 철분 제거제, 프리워시제, 유리막 쿼드테일러 등을 새롭게 출시해 제품 라인업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에어부산[주]

엑스포 유치 염원 담은 랩핑 항공기 공개



에어부산(주)은 9월 22일(목)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은 랩핑 항공기를 공개하는 에어부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요 기관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하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 개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에어부산(주) 안병석 대표는 “지역 항공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항공기 랩핑 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2030세계박람회가 반드시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에어부산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슬기로운 회원생활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10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657가지 테마&사례로 풀어보는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핵심실무**

**|일 시** 2022. 10. 6.(목) 09:00 ~ 18:00(8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박현웅 노무사(노무법인 누리)  
**|수강료** 회원 88,000원, 비회원 176,000원  
**|내 용**

주제	내 용
근로계약 체결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계약 관리 핵심포인트 3가지</li> <li>근로계약서/임금계약서 운영 실무</li> <li>수습 근로계약 운영 실무</li> </ul>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시간/휴일/휴가 관련 개정 법률 내용</li> <li>근로시간과 휴게 운영 실무</li> <li>주52시간 근무제 및 유연근로시간제</li> <li>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운영 실무</li> <li>연차휴가와 사용촉진제도 실무</li> <li>임산부 보호휴가 및 육아휴직 등</li> </ul>
임금 관리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의 의의 및 요건</li> <li>통상임금, 최저임금 관련 쟁점사항과 실무</li> <li>포괄산정 임금계약 운영 실무</li> <li>임금명세서 작성 의무(신설)</li> </ul>
퇴직 및 징계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형태별 퇴직 방식 실무</li> <li>권고사직 등 합의 퇴직 방식 실무</li> <li>징계 및 해고 관리실무</li> </ul>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방안 실무**  
세목별 조사항목 준비, 행정해석 해설 등

**|일 시** 2022. 10. 7.(금)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한울 회계법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주제	내 용
2022년 국세청 세정방향 반영한 세무조사 의의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발표된 주요 세무조사 및 신고이후의 성실신고 사후검증</li> <li>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서면조사 등의 의의와 구분기준</li> <li>2021년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세정방향</li> <li>최근 개정된 "국세기본법과사사무처리규정"을 반영한세무조사관련규정해설</li> </ul>
개별 세목별 주요 추정항목의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의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분석</li> <li>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 주요 추정사례 분석</li> <li>상속·증여세의 세무조사시 유의할체크리스트</li> <li>상속증여시의 부동산 평가시 유의사항 등</li> <li>부동산 등 재산 취득이후의 자금출처 소명시 유의사항</li> </ul>
조세불복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li> </ul>
주요 업종별 세무조사 대비 행정해석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최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세무조사에 유익한 국세청 행정해석 해설</li> </ul>

## 인건비 및 연말정산

**|일 시** 2022. 10. 19.(수) 09:30 ~ 17:30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강 사** 손창용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주제	내 용
인건비에 대한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천징수의 개요</li> <li>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종류</li> <li>원천징수의무자</li> <li>원천징수 시기 및 신고납부</li> <li>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li> </ul>
근로소득의 세무 (연말정산실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의 개념 및 범위</li> <li>비과세근로소득</li> <li>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li> <li>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li> <li>특별세액공제</li> </ul>
지급자의 세무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에 대한 세무</li> <li>상여금에 대한 세무</li> <li>퇴직금에 대한 세무</li> <li>임원과 사용인의 구분</li> <li>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세무회계</li> </ul>
퇴직자 퇴직소득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소득의 개념</li> <li>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li> <li>퇴직소득의 과세방법</li> <li>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li> <li>퇴직연금에 대한 세무</li> </ul>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 (임금관리, 근로시간, 개정노동법)

**|일 시** 2022. 10. 21.(금) 09:30 ~ 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춘성 노무사(노무법인 정원)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주제	내 용
연차유급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차유급휴가 기본 법리(1년이상 근속자 vs 1년 미만 근속자)</li> <li>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 적용(2021.12.16.)</li> <li>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운영 및 사용촉진제도 방법</li> <li>연차유급휴가 부여 사례</li> </ul>
휴일·휴가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일 및 휴가(기타휴가)의 구분과 운영방법</li> <li>관공서 공휴일에의 임금 지급 방법</li> <li>주휴일(행정해석 변경 21.8.4.), 근로자의 날의 실무관리</li> <li>법정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의 운영방안</li> <li>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방법,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의 구분</li> </ul>
임금관리와 채용 및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에 대한 세무</li> <li>상여금에 대한 세무</li> <li>퇴직금에 대한 세무</li> <li>임원과 사용인의 구분</li> <li>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세무회계</li> </ul>
2021~2022 개정 노동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령</li> <li>퇴직금 지급방법의 변경,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제도</li> <li>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2022.8.18.시행)</li> </ul>



제40회

# 부산산업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부산지역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공계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타의 모범이 되고 부산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 상공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부산산업대상」을 1983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에도 **제40회 부산산업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시상코자 하오니 첨부된 시상요강을 참고하시어 지역경제 및 상공계를 위해 헌신해오신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명** 부산산업대상

**시상부문** 경영부문 1명, 기술부문 1명, 사회공헌부문 1명

**시상내역** 상패 및 순금메달

**추천기한** 2022. 10. 17.(월)

**추천요령**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원본 우편 / 방문, 파일 이메일 제출

**접수처** 주소 |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담당 | 유수연 과장대리

Tel. 051-990-7063 E-mail usuyeonholic@korcham.net



※ 모든 서류는 추천요령 서식을 이용해 정확히 기재 후 기간 내 제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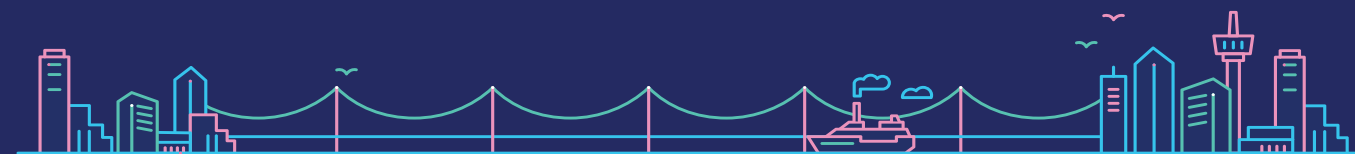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대한민국 첫번째 월드엑스포 2030부산 세계박람회

## 유치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뛰겠습니다!

2023년 12월 개최도시 결정





# 경영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 2023학년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모집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동문이 강한 사례중심 교육의 요람!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동문 네트워크  
동아대 동문 23만명  
MBA 동문 3천5백명  
AMP 동문 3천명

### 제57기 석사학위과정 (MBA)

#### ■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	모 집 인 원	
경영학과(야간)	70명	특별전형(56명) 일반전형(14명)

#### ■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구분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원서접수	2022.10.24.(월)~11.04.(금) 24:00	2022.11.28.(월)~12.09.(금) 24:00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	2022.11.09.(수) 17:00까지	2022.12.14.(수) 17:00까지
구술면접고사	2022.11.11.(금) 18:00	2022.12.16.(금) 18:00
합격자 발표	2022.11.25.(금) 14:00	2022.12.28.(수) 14:00
합격자 등록	2022.12.07.(수)~12.09.(금) 예정	2023.01.04.(수)~01.06.(금) 예정
접 수	온라인 접수 (http://mba.donga.ac.kr 참조)	

#### ■ 수업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야간수업 실시(19:00 ~ 21:15)

#### ■ 수업료 및 장학금

(기준: 2022학년도)

수업료	장학유형	장학금	실납부 수업료	비 고
3,105,300원	학업지속지원장학금(40%)	1,242,120원	1,863,180원	신입생 및 재학생 전원지급
	공무원장학금(50%)	1,552,650원	1,552,650원	대상자는 학업지속지원장학금의 차액금 지급
	가족장학금(50%)			

- 부산지역 국립대 수업료(평균: 2,142,250원) 보다 낮음
- 입학시 입학금(692,000원) 별도 납부
- 학업지속지원장학금은 매학기 6학기 이상 이수자에게 전원 지급
- 가족장학금은 본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학부에 가족(부모, 직계자녀, 형제자매)이 재학 중인 자

####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바로가기



### 제57기 최고경영자과정 (AMP)

#### ■ 모집인원

60명 내외

#### ■ 지원자격

- 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
- 상위직 공무원 및 군 고급장교
- 공기업 임원 및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일정

- 접수 : 2022. 10. 24.(월) ~ 정원 충족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 방문 또는 팩스  
담당자 이메일 pkr8256@dau.ac.kr
- 면접고사 :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바로가기

#### ■ 교육기간

- 2023년 3월~2024년 2월 (1년 과정)

####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9:00~21:00

국내외 저명인사 중심의 특강 구성 [강의 만족도 최상]

4차산업혁명 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CEO의 예측 능력향상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노하우 학습

#### ■ 특전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가입
- 우수 수료자에 대한 별도 시상
- 동아대학교병원 및 평생교육원 할인 혜택
- 동아대학교 정기간행물 발송, 각종세미나 및 포럼(동아비즈니스 포럼) 참가

동아대학교 재학생 가족 및 AMP 기(既)수료 원우 수강료 50% 감면

